

한 사람의 이야기



옥순의 이야기

1953년 의성에서, 오늘의 망원동까지

이 옥 순

박민지, 박민호 엮음

옥순의 이야기

1953년 의성에서, 오늘의 망원동까지

이옥순

옥순의 이야기

1953년 의성에서, 오늘의 망원동까지

이야기 · 이옥순

엮은이 · 박민지, 박민호

기록한 때 · 2026년 7월 21일 – 2026년 9월 30일

담은 이야기 · 11편, 사진 3장

만든 곳 · 첫인사 부모님 자서전

이 책은 견본입니다. 등장하는 인물과 이야기는 지어낸 것입니다.

이 책의 글과 사진은 가족의 것입니다.

엄마, 엄마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걸 요즘
알았어요.

전화로는 늘 밥 먹었냐는 말만 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엄마 목소리로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일 년 뒤에 책으로 만들어서 손주들한테도 물려줄게요.

— 박민지, 박민호 드림

차 례

첫째 장 · 내가 태어난 곳	8
어릴 때 살던 집은 어떻게 생겼었나요?	
둘째 장 · 골목에서 뛰놀던 날	10
가장 어릴 적 기억은 뭐예요?	
셋째 장 · 책보 메고 다니던 길	11
도시락은 어떤 걸 싸 갔어요?	
다섯째 장 · 한 사람을 만나	12
남편을 처음 만난 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결혼식 날은 어땠어요?	
아빠한테 처음 받은 선물이 뭐였어?	
여섯째 장 · 너희를 키우며	15
아이들 어릴 때 제일 귀여웠던 모습이 기억나요?	
일곱째 장 · 먹고살던 이야기	16
첫 직장은 어땠어요?	
직업을 바꾸거나 장사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덟째 장 · 그 시절을 건너온 힘	18
IMF 때, 혹은 나라가 어수선하던 때 우리 집은 어땠어요?	
열째 장 · 오늘, 그리고 남기고 싶은 말	19
우리 집 대표 음식의 조리법을 남겨 주세요.	

첫 째 장

내가 태어난 곳

부모님, 고향, 집안 이야기

물 음

어릴 때 살던 집은 어떻게 생겼었나요?

2026년 7월 29일 · 목소리로 들려주신 이야기

우리 집은 의성 산골짜기 초가집이었어. 방 두 칸에 부엌 하나, 그리고 소 한 마리 있는 외양간. 마당 한가운데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가을이면 그 감 따는 게 우리 형제들 큰일이었지.



의성 고향집이 이랬다. 감나무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고 들었다.

겨울이면 아궁이에 장작을 때서 아랫목은 장판이 누렇게 탈 만큼 뜨겁고, 윗목은 걸레가 뽕뽕 얼 만큼 추웠어. 형제가 여섯이니 다 한 방에서 이불 하나를 덮고 잤지. 자다 보면 발이 서로 얹혀서 차고 올고, 그러다 엄마한테 다 같이 혼나고.

우물은 동네 공동 우물이라 물둥이를 머리에 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갔어. 지금 생각하면 그 좁은 데서 어떻게 다 살았나 싶은데, 그때는 그게 넓은 줄 알았어.

둘 째 장

골목에서 뛰놀던 날

놀이, 동네, 형제들

물 음

가장 어릴 적 기억은 뭐예요?

2026년 7월 21일 · 목소리로 들려주신 이야기

제일 어릴 적 기억은 우리 아버지 등이야. 아버지 등에 업혀서 의성 장에 갔던 날. 다섯 살인가 여섯 살인가 그랬을 거야. 아버지는 지게에 고추를 잔뜩 지고 나는 등에 업고, 그렇게 고개를 넘어가셨지.

장에 들어서면 국밥 냄새가 확 풍겨. 아버지가 국밥은 못 사 주시고 알사탕을 하나 사 주셨어. 그걸 입에 넣고는 집에 올 때까지 안 녹이려고 혀 밑에 꼭 숨겨 놓고 왔지.

지금도 사탕 하나 입에 물면 그 등이 생각나. 땀 냄새 나던 무명 저고리, 걸을 때마다 출렁이던 거. 아버지는 그날 고추를 다 파셨는지 못 파셨는지, 그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셋째 장

책보 메고 다니던 길

선생님, 친구, 도시락

물음

도시락은 어떤 걸 싸 갔어요?

2026년 8월 6일 · 손수 적어 주신 이야기

보리밥에 김치. 계란은 일 년에 몇 번, 소풍 갈 때나 구경했다. 양은 도시락을 난로 위에 줄줄이 올려놓으면 점심때쯤 김치 익는 냄새가 교실에 짝 찼다.

선생님이 혼분식 검사를 한다고 도시락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 보던 것도 생각난다. 보리가 섞였는지 보는 건데, 우리 집은 쌀이 귀해서 검사할 것도 없었다. 오히려 쌀밥 싸 온 아이들이 혼나는 걸 보고 속으로 좀 고소했던 기억이 난다.

다섯째 장

한 사람을 만나

만남, 결혼식, 신혼

물음

남편을 처음 만난 날 이야기를 해 주세요.

2026년 8월 19일 · 목소리로 들려주신 이야기

너희 아버지는 중매로 만났어. 스물네 살 봄에 대구 시내 다방에서 처음 봤지. 키는 그리 크지 않은 사람이 양복을 입고 왔는데, 소매가 길어서 손이 반쯤 덮여 있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 양복을 빌려 입고 나온 거였어.

커피를 시켜 놓고는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계속 물만 들이켜는 거야. 긴장해서 그랬대. 그 모습에 웃음이 나서, 그때부터 이 사람 괜찮겠다 싶었어.

말수는 적었어. 그런데 헤어질 때 버스 정류장까지 말없이 따라와서는, 내가 버스에 타서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 창밖으로 보니까 버스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안 가고 서 있었어.

물 음

결혼식 날은 어땠어요?

2026년 8월 27일 · 목소리로 들려주신 이야기

결혼식은 1977년 시월, 의성 읍내 예식장에서 올렸어. 그날 아침에 비가 와서 다들 걱정했는데, 식이 시작되니까 거짓말처럼 딱 그치더라.



1977년 시월, 결혼식 날. 눈썹 이야기는 사진을 보면 안다.

드레스는 예식장에서 빌린 거였고, 화장은 미장원에서 했는데 눈썹을 어찌나 진하게 그려 났는지 지금 사진을 봐도 웃음이 나. 너희 아버지는 그날도 빌린 양복이었어. 이번엔 그래도 소매가 맞았지.

폐백 때 시어머니가 대추를 던져 주시는데, 그걸 치마폭으로 받아야 아들딸 많이 낳는다고 했거든. 내가 몇 개를 놓쳐서 다들 한바탕 웃었어. 그래서 너희 둘만 낳았나 보다 하고, 아버지가 두고두고 놀렸지.

물 음

아빠한테 처음 받은 선물이 뭐였어?

2026년 9월 22일 · 목소리로 들려주신 이야기

처음 받은 선물은 손거울이야. 결혼 전에 두 번째 만났을 때, 신문지에
둘둘 싸 와서는 쓱 내밀더라. 뒷면에 꽃무늬가 있는 동그란
손거울이었어.

주면서 한다는 말이, 화장 너무 진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첫날 내
눈썹이 그렇게 진했대. 그 말에 서운해야 하는데 웃음이 났지.

그 거울, 아직 있어. 안방 서랍 맨 위 칸에.

여섯째 장

너희를 키우며

출산, 육아, 자식 걱정

물음

아이들 어릴 때 제일 귀여웠던 모습이 기억나요?

2026년 9월 1일 · 목소리로 들려주신 이야기

민지 너는 말을 일찍 텃어. 돌 지나자마자 엄마, 아빠 하더니 두 돌 때는 노래를 한 곡씩 다 불렀지. 그런데 발음이 안 돼서 '산또끼 또끼야' 하고 불러서 온 식구가 배를 잡고 웃었어.

민호는 말이 늦어서 속을 많이 끓였어. 병원에 가 봐야 하나 했는데, 세상 되던 해에 갑자기 "할머니, 밥 줘" 하고 한 문장을 툭 떨어지게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할머니가 우셨어. 손자가 처음 제대로 한 말이 할머니라고. 그 뒤로 할머니는 민호 밥은 꼭 당신이 떠먹이셨지.

일 곱 짜 장

먹고살던 이야기

첫 직장, 장사, 살림

물 음

첫 직장은 어땠어요?

2026년 8월 11일 · 목소리로 들려주신 이야기

열일곱에 대구 섬유 공장에 들어갔어. 국민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는 못 가고, 집에서 농사일 거들다가 동네 언니가 대구 가면 돈 번다고 해서 그 길로 따라나섰지.

기숙사 한 방에 여덟 명이 같이 살았어. 아침 여섯 시부터 밤늦게까지 미싱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손가락이 퉁퉁 붓고, 실밥이 머리카락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지.

첫 월급이 칠천 원인가 그랬는데, 거의 다 집으로 부쳤어. 동생들 학교 다니라고. 그래도 일요일이면 친구들이랑 동성로에 나가서 찐빵 사 먹고, 사진관 가서 한껏 멋 부리고 사진도 찍었어. 그게 그렇게 좋았어. 고생한 기억보다 그 찐빵 맛이 먼저 나.

물 음

직업을 바꾸거나 장사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026년 9월 9일 · 목소리로 들려주신 이야기

반찬가게는 민호가 국민학교에 들어가던 해, 구십 년대 초에 망원시장에서 시작했어. 아버지 회사 월급만으로는 너희 둘 공부시키기가 빠듯했거든.



망원시장 반찬가게. 간판 글씨는 아버지가 직접 썼다.

처음엔 김치만 담가서 팔았어. 그게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나중엔 반찬을 스무 가지 넘게 했지. 새벽 네 시에 일어나서 장 보고, 다듬고, 무치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저녁이면 다리가 통통 부었어.

그래도 단골들이 "이 집 김치 아니면 안 먹는다" 할 때, 그 맛에 이십 년을 했어. 너희는 가게 구석 평상에서 숙제하고 낮잠 자고 그랬지. 기억나나 모르겠다.

여덟째 장

그 시절을 건너온 힘

힘든 고비, 버틴 이야기

물음

IMF 때, 혹은 나라가 어수선하던 때 우리 집은 어땠어요?

2026년 9월 17일 ·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

IMF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거지. 그때 민지 너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마 몰랐을 거야. 우리가 내색을 안 했으니까.

가게 매출도 반으로 뚝 떨어졌어. 그래서 아버지가 새벽부터 가게 일을 같이 하기 시작했지. 처음엔 반찬 담는 것도 서툴러서 맨날 국물을 흘리고 뚜껑을 잘못 닫고 그랬어. 그런데 일 년쯤 지나니까 나보다 손이 더 빨라지더라.

이상하지. 그렇게 힘들 때 둘이 하루 종일 붙어서 일하면서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졌어.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와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

열째장

오늘, 그리고 남기고 싶은 말

요즘의 하루, 당부

물음

우리 집 대표 음식의 조리법을 남겨 주세요.

2026년 9월 30일 · 목소리로 들려주신 이야기

우리 집 된장찌개는 멸치 육수부터 내야 해. 국물용 멸치 열 마리에 다시마 한 장 넣고 십 분 끓인 다음 건져 내.

된장은 두 숟가락, 그리고 고추장 반 숟가락. 이게 비법이야. 고추장을 아주 조금 넣어야 국물이 칼칼하면서 달큰해지거든. 된장은 꼭 체에 걸러서 풀어야 국물이 깔끔해.

애호박, 감자, 양파 먼저 넣고 끓어오르면 두부를 넣어. 청양고추 하나 송송 찢어 넣고, 불 끄기 직전에 대파. 너희 자취할 때 전화로 몇 번을 불러 줬는데, 이제는 책에 있으니까 다시 안 물어봐도 되겠다.

가족이 덧붙이는 말

이옥순 님의 이야기를 읽고 떠오른 기억을 여기에 적어 주세요.

“어릴 때 살던 집은 어떻게 생겼었나요?”

매주 하나씩 건넨 질문에
이옥순이 들려주신 11편의 이야기를
가족이 받아 적어 엮었습니다.